

**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6

발 의 자 : 한창민 · 백승아 · 고민정  
안태준 · 박정현 · 용혜인  
김 윤 · 강경숙 · 서미화  
문정복 · 강유정 · 김선민  
민병덕 의원(13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,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,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,317명, 연체금액은 1,144억원이고, 부실채무자수는 53,964명, 채무금액은 3,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,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 및 제17조).



##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”를 “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의 결정을 함에”를 “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함에”로 한다.

다만, 생활비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(單利)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”를 “대출잔액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및 제1

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대출 금리)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제11조(대출 금리) ① ----- --- <u>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</u>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생활비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 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 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함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
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<u>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</u>	제17조(대출원리금 계산) ① ---- ----- ----- <u>대출잔액으</u> 로 한다. < <u>단서 삭제</u> >

<p><u>(單利)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	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